

2017년 지방직 7급 국어 기출문제 해설 (1)

이유진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너 말 한번 잘 했다.
- ② 값이 얼마지 한번 물어보세요.
- ③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한번밖에 못 만나다.
- ④ 한번 옆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정답] ③

[출제영역]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해설]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쓴다. ‘한 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쓴다.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두번밖에 못 만나다.’라고 바꾸어도 말이 통하므로 ‘한번’은 ‘한 번’으로 띄어 쓴다.

[참고] 의미 특수화된 합성어(알기 쉬운 문법 p. 170)

구	합성어(의미 특수화)
작은V집: 규모가 작은 집	작은집: 작은아버지의 집
큰V집: 커다란 집	큰집: 집안의 맏이가 사는 집
큰V소리: 커다란 소리	큰소리: 야단치거나 과장하는 말
큰V코V다치다: 코 부상	큰코다치다: 봉변.무안당하다.
한V발: 한 걸음	한발: 행동이 약간 간격이 있게
한V걸음: 한 번의 보폭	한걸음: 쉬지 않고 내쳐 걷는 걸음
한V잔: 하나의 분량인 잔	한잔: 간단하게 마시는 차나 술
한V번: 하나의 횟수	한번: 시험 삼아 시도함, 지난 어느 때나 기회
한V판: 승부를 겨룬 수효	한판: 겨루는 것을 시도함
우는V소리: 실제 우는 소리	우는소리: 염살을 부리는 소리
우리V말: 우리들의 말	우리말: 한국어
허물V없는: 잘못이 없는	허물없는: 매우 친한
다V되었다: 완성	다되었다: 완전히 망치다
밥맛V없다: 입맛이 없다	밥맛없다: 아니꼽다

[오답 해설]

- ①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 ‘한번’은 붙여 쓴다. ‘너 말 두 번 잘 했다.’라고 바꾸면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번’을 붙여 쓴다.
- ②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부사 ‘한번’은 붙여 쓴다. ‘값이 얼마지 두 번 물어보세요.’라고 바꾸면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번’을 붙여쓴다.

④ ‘한번 옆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라는 문장에서 ‘한번’을 ‘두번’으로 바꾸면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번’을 붙여 쓴다.

2. ㉠과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음주의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 단어의 발음이 여러 가지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대로 적는다면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어법이란 언어 조직의 법칙, 또는 언어 운용의 법칙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것이다.

- ① ㉠: ‘살고기’로 적지 않고 ‘살코기’로 적음
- ② ㉠: ‘론의(論議)’로 적지 않고 ‘논의’로 적음
- ③ ㉡: ‘그피’로 적지 않고 ‘급히’로 적음
- ④ ㉡: ‘달달이’로 적지 않고 ‘다달이’로 적음

[정답] ④

[출제영역]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해설]

“끝소리가 ‘ㄹ’인 말과 ㅌ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8항에 따라 ‘달-달-이’는 ‘다달이’라 적는다. 따라서 ‘다달이’는 표음주의를 따라 소리대로 적은 것이므로 ㉠의 예이다.

[오답 해설]

- ① ‘ㅎ 종성 체언’인 ‘살ㅎ’과 ‘고기’의 합성어인 ‘살코기’는 [ㅎ]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단어이다. 소리 나는 대로 뒤 단어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은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②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12항에 따라 ‘論議’는 ‘논의’로 적지 않고 ‘논의’로 적는다. 단어의 첫머리에서 ‘ㄹ’을 ‘ㄴ’으로 발음하려는 표음주의를 따른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③ ‘급히’는 [그피]로 발음하나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따라 ‘급히’로 적는다. 이는 어법에 맞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은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3. 밑줄 친 어휘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달걀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② 식당에서 깎두기를 더 주문했다.
- ③ 손님은 종업원에게 당장 주인을 불러오라고 닥달하였다.
- ④ 작은 문 옆에 차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넓다란 길이 났다.

[정답] ①

[출제영역]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해설]

‘먹거리’란 말은 한동안 표준어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동사의 어간이 명사와 바로 결합하는 것은 문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온갖 것’이란 의미로 ‘먹을거리’와 복수 표준어로 사전 등재되었다.

[참고] 2011년 새로 인정한 복수 표준어(알기 쉬운 문법 p. 236)

간질이다/ 간지럽히다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	등물/목물	맨날/만날
못자리/뚝자리	복숭아뼈/복사뼈	세간살이/세간	쌈싸름하다/ 쌈싸래하다
토란대/고운대	허접쓰레기/ 허섭쓰레기	흙담/토담	-길래/-기에
개발새발/괴발개발	나래/날개	내음/냄새	눈꼬리/눈초리
떨구다/떨어뜨리다	뜨락/뜰	먹거리/먹을거리	메꾸다/메우다
손주/손자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연신/연방	횡하니/횡허케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끄적거리다/ 끼적거리다	두리몽실하다/ 두루몽술하다	맨송맨송/맹송맹송/ 맨송맨송
바둥바둥/바동바동	새초롬하다/ 새치름하다	아웅다웅/아웅다웅	야멸차다/야멸치다
오손도손/오순도순	찌뿌둥하다/ 찌뿌듯하다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	-
자장면/짜장면	태견/택견	품세/품새	-

[오답 해설]

② ‘깍둑거리다’의 어근 ‘깍둑-’에 접사 ‘-이’가 결합된 파생어이나 어근의 본뜻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그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않고 ‘깍두기’라 적는다. 흔히 ‘깍다’에서 온 말로 착각하여 ‘깍두기’로 적을 수가 있으나 ‘깍두기’는 어원상 ‘깍다’와 연관이 없다.

③ ‘남을 단단히 으박질러서 혼을 내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뉘달하다’라 적는다.

④ ‘넠따랗다’의 기본형인 ‘넠다’는 [넠따]로 발음한다.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1항의 예외 조항에 따라 ‘넠다’의 어간 ‘넠-’과 접미사 ‘-다랗다’가 결합된 파생어는 ‘넠다랗다’가 아닌 ‘넠따랗다’로 적는다.

4. 다음은 일부 지역과 계층에서 ‘애’와 ‘에’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애’와 ‘에’를 구별하는 ‘( )’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 ① 혀의 앞뒤 관련 자질
- ② 혀의 높낮이 관련 자질
- ③ 소리의 강약 관련 자질
- ④ 소리의 장단 관련 자질

[정답] ②

[출제영역] 이론 문법 - 음운론 - 음운의 체계

[해설]

‘애’와 ‘에’는 모두 혀의 위치에 따라서는 ‘전설모음’,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는 ‘평순 모음’이다. 그러나 ‘에’는 고모음보다 입을 더 열어서 혀의 위치를 중간으로 하여 발음하는 중모음이고, ‘애’는 입을 크게 열어서 혀의 위치를 가장 낮게 하여 발음하는 저모음이다. 따라서 두 모음은 혀의 높낮이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참고]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알기 쉬운 문법 p. 35)

혀의 위치에 따라		전설모음		후설모음	
혀의 높이에 따라	입술의 모양에 따라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꺠	ㅡ
중모음		꺠	꺠	꺠	꺠
저모음		꺠		ㅏ	

### 5.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그 어른은 웬간해서는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다.
- ② 일이 얽히고설켜서 풀기가 어렵다.
- ③ 불필요한 기능은 빠지고 필요한 기능만 살렸다.
- ④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알 수 없다.

[정답] ②

[출제영역]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이론 문법 - 통사론 - 올바른 표현

[해설]

‘얽히고설키다’가 옳은 표기이다. ‘얽히다’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섞히다(또는 설키다)’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용언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1항에 따라 ‘얽히고설키다’로 적는다.

[오답 해설]

① ‘웬간하다’라는 말은 표준어가 아니다. 발음이 비슷한 말로는 ‘웬만하다’와 ‘엔간하다’가 있는데 이 중 ‘웬만하다’의 ‘허용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라는 둘째 의미가 문맥에 가장 적합하다.

- 엔간하다: 대중으로 보아 정도가 표준에 꽤 가깝다.
- 웬만하다: 「1」정도나 형편이 표준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낮다.
- 「2」허용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③ ‘불필요한 기능은 빠지다’와 ‘필요한 기능만 살렸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그런데 주어의 보조사를 주격 조사로 바꾸었을 때 앞 문장은 ‘기능이 빠지다’로 주어와 서술어 관계인 반면, 뒤의 문장은 ‘기능을 살렸다’로 목적어와 서술어 관계이다. 이어진문장에서는 호응이 서로 맞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기능은 빼고 필요한 기능만 살렸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알맞다.

④ ‘공사가’는 ‘시작되고’의 주어이지, ‘개통될지’의 주어는 아니다. ‘알 수 없다’에 호응하는 전체 주어( 우리는)가 빠져 있지만, 문맥상 지장이 없어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통될지’에 해당하는 주어( 도로가, 철도가 등)를 생략할 경우에는 문맥상 결함이 생긴다.